

## 崔忠獻의 執權과 京軍

金 大 中\*

1. 머 리 말
2. 崔忠獻 勢力의 形成과 京軍
3. 崔忠獻의 성문 봉쇄와 李義旼 兵力의 차단
4. 崔忠獻의 京軍 動員과 執權
5. 崔忠獻 勢力 중심의 京軍 재편
6. 맺 음 말

### 1. 머 리 말

崔忠獻은 明宗 26년(1196) 4월 李義旼을 제거하고 집권하였다. 최충헌에게 제거 당한 이의민은 賤出임에도 불구하고 明宗 13년(1183) 7월에 執政하였던 인물이다.<sup>1)</sup> 이의민 집권기에 한 동안 최충헌은 출세를 하였으나 明宗 17년(1187) 경상진주도 안찰사 직에서 탄핵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

\*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1) 이의민의 집권과정에 대해서는 金塘澤, 『李義旼政權의 성격』, 새문사, 1987; 『高麗의 武人政權』, 1999, 國學資料院 참조.

로 최충헌과 이의민의 관계는 변하여,<sup>2)</sup> 중국에는 최충헌이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이르렀다.

최충헌이 어떻게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할 수 있었을까. 최충헌의 집권과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궁금히 여기는 점을 풀어보고자 작성되었다. 이제까지 최충헌의 집권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최충헌의 집권과정을 『고려사』의 기록을 풀어 소개하는데 그친 감이 있다. 이들 기록들을 軍事史의 관점에서 보는데 소홀하였다. 특히 최충헌의 한 세력으로서 정변에 가담했던 京軍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필자가 최충헌의 집권과정을 京軍과 관련하여 검토하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필자가 살펴보려는 바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최충헌 세력의 세력형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 검토는 먼저 최충헌이 이의민에게 불만을 품게 된 계기와 세력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최충헌 세력

2) 金大中, 『崔忠獻 政權의 成立 背景-崔忠獻과 李義旼의 관계변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93, 2002. 6.

3) 金塘澤,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高麗의 武人政權』, 국학자료원, 1999; 洪承基 編, 『高麗武人政權研究』, 西江大 出版部, 1995; 洪承基,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Shultz, E.J.,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Korea under the Ch'oe House : 1196~1258*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waii University, 1976. *Generals and Scholars: Military Rule in Mediev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2000; 朴喜熙, 『崔忠獻小考』, 『史學志』 3, 檀國大學校 史學會, 1969; 林允卿, 『崔忠獻政權의 成立과 그 性格』, 『梨大史苑』 20, 1983; 李慶喜, 『崔忠獻家門 研究』, 『釜山女大史學』 5, 1987; 邊太燮,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 『한국사』 7, 1973; 閔丙河, 『崔氏政權의 支配機構』,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申安湜, 『고려 신종대 최충헌정권의 대민정책과 지방사회』, 『사학연구』 53, 1997; 申安湜, 『고려 명종대 무인정권의 대민정책』, 『역사와 현실』 24, 1997; 金庠基, 『高麗武人政治機構考』, 『東方文化交流史論考』, 1948;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的 都房의 설치와 그 方向』, 『東亞研究』 6, 1985; 서성호, 『무인집권기 정치사의 재조명』,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오영선, 『최씨집권기 정권의 기반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李在範, 『崔氏政權의 성립과 山川裨補都監』, 『成大史林』 5, 1989; 채웅석, 『명종대 권력구조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가운데 경군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다. 경군이 최충헌이 일으킨 정변에서 그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충헌이 이의민 세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최충헌이 경군 가운데 성문 출입 임무를 수행하는 監門衛 將軍을 포섭하였던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최충헌은 감문위 장군을 포섭하여 3중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開京의 성문을 봉쇄하였다. 이를 이의민 병력의 출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점에서 볼 것이다.

셋째는 최충헌이 어떠한 방식으로 병권을 행사하여 경군을 동원하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먼저 고려시대의 병권이 어떠한 계통으로 행사되었는가 하는 점부터 확인해 볼 것이다. 최충헌이 실질적인 병권을 쥐고 있던 이의민을 따돌리고자 했던 까닭을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최충헌의 병권 행사 방식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최충헌이 정변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넷째는 최충헌이 집권 후 京軍의 上·大將軍 및 將軍들을 제거한 점에 주목할 것이다. 왜 최충헌은 정변에 가담했던 이들을 제거하였을까. 이를 최충헌의 경군 재편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때 교체된 上·대장군은 전체의 얼마나 되었을까도 헤아려 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최충헌 정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면 한다.

## 2. 崔忠獻 勢力的 形成과 京軍

최충헌이 이의민 정권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명종17년(1187)의 탄핵사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탄핵사건으로 경상진주도 안찰사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명종23년(1193) 監門衛中郎將, 攝龍虎軍中郎將을 거쳐 명종25

년(1195)에는 임시직인 左右衛精勇攝將軍이 되었다. 다음해인 명종26(1196)에는 실직인 장군이 되었다.<sup>4)</sup> 그리고 장군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려는 정변을 일으켰다. 최충헌이 정변에 가담할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였을까. 이와 관련해서 최충헌이 언제부터 이의민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점부터 생각해 보자.

그것은 최충헌이 명종 17년(1187) 봄 경상진주도의 안찰사에 나갔을 때의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안찰사 임무 도중 아무 잘못도 없이 탄핵을 받아 억울하게 돌아오게 되었다.<sup>5)</sup> 왜 최충헌이 탄핵을 받았을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래의 최충헌 묘지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A 辛丑 除攝卽眞 丁未春出 按慶尙晉州道 登車攬轡 風稜震肅 得古使臣之體 忤權臣意 舞文舉劾 使未竟 尋以私 騎還 然有識者 不以公爲非 是年攝遷龍虎軍中郎將 戊申眞授 公之稟受 素有大過人者 盤桓徧裨 累歲 堙屈人 多以是舛望 癸丑冬改監門衛中郎將借本衛將軍 甲寅遷攝 乙卯 夏□□因右衛精勇攝將軍 明廟在有之末年 權倖□朝于亂 朝政中外憤鬱 丙辰夏 公奮然學義 □□□專 恣者 國步賴安(『崔忠獻 墓地銘』).

B (明宗)二十六年 李義叟子 將軍至榮 奪忠粹家鶻 忠粹請還言 甚悖至榮 怒令 家僮縛之 忠粹曰 非將軍手縛 誰敢縛我 至榮壯而釋之 忠粹即告忠獻 曰 義叟四父子 實爲國賊 我欲斬之 何如 忠獻難之 忠粹曰 吾志已決不可中止 忠獻乃然之(『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사료 A는 최충헌이 이의민 정권 아래에서 “권신의 뜻에 거슬러 탄핵을

4) 金大中, 『崔忠獻 政權의 成立 背景-崔忠獻과 李義叟의 관계변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93, 2002. 6.

5) 그의 묘지명의 표현대로 “권신의 舉劾을 받아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私騎로써 돌아오게 되었다(忤權臣意 舞文舉劾 使未竟 尋以私騎還). 그러나 알만 한 사람들은 최충헌의 잘못으로 삼지 않았다(然有識者 不以公爲非).”

받아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최충현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탄핵이 억울하게 이루어졌음을 엿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충현이 이의민 정권에 반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sup>6)</sup> 최충현 묘 지명에 “최충현의 품성은 본래 다른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 두루 돌봄이 있었으며, 여러 해를 막히고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이 희망을 품었다”는 기록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최충현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최충현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분명 이의민 정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명종 재위 말년에 “권세 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조정을 어지럽게 하자 조정 안팎은 울분이 가득했다”는 A의 기록에서도 드러나 있다. 현실에 불만을 품고 최충현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반이의민세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최충현 휘하에 모여든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모두 이의민 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다. 따라서 최충현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사료 B는 최충현 형제가 왜 이의민 제거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두 집안의 분쟁은 최충수와 이의민의 아들인 지영 사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분쟁의 뿌리는 아니었다. 최충현이 정변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sup>7)</sup> 최충현은 이미 탄핵을 받은 이후부터 이의민 정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자신에게 모여든 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가면서 이의민 세력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최충수와 이의민 아들 지영 사이에 비둘기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최충현과 최충수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최충현이 정변을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B의 기록에 의하면, 최충현은 최충수가 이의민을 제거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충현은 자신의 세력으로 실질적인 병권을 쥐고 있는 이의민의 군대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 최충현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그가 일부 경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장악한 데에 있었다. 최충수가 거느린 장군 오숙비·준존심·박정부<sup>8)</sup> 등도 곧 최충현 세력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최충현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의민 세력을 칠 수 없었다. 군사력만으로 따진다면, 최충현이 이의민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누구보다 최충현 자신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충현은 이의민의 병력을 차단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했다. 그것은 이의민 병력을 차단시키는 일이었다. 이의민의 병력동원을 차단하여 무력화 시킬 수만 있다면, 이의민 제거는 어려울 것이 없었다.<sup>9)</sup>

그러면 최충현이 이의민을 제거할 때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료 B에 의하면, 그것은 최충현의 族人과 黨與들이었다. 이른바 族黨으로 불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의 동생 최충수와 생질인 대정 박진재, 그리고 족인인 노석승·김약진이었다. 그들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거사하고, 실제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을 제거했다.<sup>10)</sup> 아래의 사료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9) 旗田巍는 「高麗의 武人 崔氏의 家兵」(『白初洪淳稜博士還曆記念史學論叢』, 1977)에서 최충현의 이의민 제거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그는 이의민의 암살에 가담하였던 것은 그의 소수 혈연자였으나, 여기에는 家兵들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族人만이 이의민 제거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의민 정권 아래에서 소외되었다가 최충현의 주위에서 맴돌았던 이들이 함께 가담했다고 생각된다.

10) Shultz는 최충현 정권의 Brain Trust 10명(김약진, 노석승, 기홍수, 백존유, 정극은, 정숙첨, 최선, 임유, 조영인, 금의)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최충현과 어떤 관계였는지 주목하였다. 그는 이들 10명이 최충현과 함께 핵심적 위치에 포진하고 있었고, 최충현의 최고의 리더라고 믿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권 기간 동안의 활동과 리더십의 질이 어떠했는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Shultz, *Generals and Scholars: Military Rule in Mediev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2000, 79~82쪽).

6) 그를 탄핵한 장본인이 이의민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탄핵이 이의민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7) 김당택, 『이의민정권의 성격』, 『고려무인정권연구』, 새문사, 1987, 50~55쪽 참조.

C-1 使碩崇持首馳入京 梟于市 觀者 驚噪聲振都下 扈從者 聞變潛遁王 亦趣駕還宮 忠獻忠粹馳馬露刃至十字街 見監行領將軍 白存儒告 以故存儒樂從之 召集將士(『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2 忠獻 忠粹與晉材 碩崇及其族人金躍珍等 勒兵市街 爲中軍分 諸衛兵爲左右前後軍屯于四街 又遣將卒 閉諸城門(『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C-1의 기록은 최충헌의 생질이었던 盧碩崇이 이의민을 수도 개경에 梟首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는 최충헌의 族人으로서 이의민을 제거한 행동대원이었다. C-2에 보이는 최충헌의 죽인 김약진도 노석송과 함께 이의민 제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최충헌 최충수 형제는 이들 행동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監行領將軍 白存儒를 통하여 병력을 동원토록 하였다(C-1). 감행령이란 바로 감문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1)</sup> 감문위가 6위 가운데 전투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대로 알려져 있지만,<sup>12)</sup> 그 임무가 성문 수비여서 정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 이러한 까닭에 최충헌은 병력의 출입을 통제하는 감문위의 장군을 정변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정변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최충헌은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인 족당을 중심으로 이의민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하였다.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는 데는 박진재를 내세웠다. 박진재는 최충헌의 조카이면서 경군의 지휘관이었으며, 거느린 문객도 수백인에 이르렀다.<sup>13)</sup> 한마디로 박진재는 최충헌이 가장 신뢰한 인물 가운데

11) 金塘澤, 「武臣執權時代의 軍制」, 『高麗軍制史』, 육군본부, 1984, 274쪽 참조.

12) 감문위 소속 군인에 대해서는 許領子孫親族代之 無子孫親族者 年滿七十閑屬監門衛 七十後只給口分田五結收餘田 至於海軍亦依比例 라 하여 “군인으로서 늙고 신병이 있는 자는 그 자손이나 친족으로 하여금 그 대신 복무토록 허락할 것이며, 자손 친족이 없는 자는 나이 70이 될 때까지는 감문위에 속해 있게 하다가 70세 이후에는 다만 5결만 주고 나머지 토지는 회수하는데, 해군에 이르기까지 한 예에 따르도록 하라(『高麗史』 권78 食貨志1 田制 柴地 文宗 23年 條)고 되어 있다.

하나였다. 최충헌이 이의민 제거를 위하여 미타산 별장문으로 출동하였을 때 최충수·노석송과 더불어 박진재를 대동하였던<sup>14)</sup> 것도 이 점에 기인하였다.

박진재는 계획대로 이의민을 별장 입구에서 기습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의민 제거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최충헌의 족당 뿐 아니라 최충헌의 묘지명에 언급된 바 있는 이의민 정권하에서 소외되었던 이들도 다수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충헌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충헌의 족당들과도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다.

최충헌 세력 가운데 다른 하나는 崔氏家와 통혼하였던 인물들이 있다. 다음 D의 사료들을 검토해보자.

D-1 趙準者 忠粹女婿也(『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2 (神宗)五年 忠獻始在私第 與內侍吏部員外郎盧瑄 注擬文武官 以奏王 領之二部判事坐政堂 但檢閱而已 忠獻獨專政柄 或因左右所托 或納賂稱意者 皆得拜官 (中略) 瑄忠獻外親 起市井 性巧黠善承迎 忠獻甚寵愛 由是不數年 驟遷吏部郎中 車馬輻湊 氣勢日熾 親戚皆顯 賄賂公行(『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3 忠獻女婿 任孝明登第 王卽屬內侍 下宣旨 權補閣門祇候(『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D-1의 조준은 최충헌의 동생인 최충수의 사위였다. 최충헌은 최충수의 사위인 조준에게는 호부시랑 우간의 대부를 제수하였다.<sup>15)</sup> D-2의 노관은

13) 이 사료는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한 후 최충수와 대립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충수와 그 휘하에 있는 문도들의 관계가 최충헌 집권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4)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15)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조준은 명종조에 참지정사와 정당문학을 역임한 趙永仁의 아들이다(『高麗史』 권99 趙永仁).

최충현의 外親이다. 市井에서 일어난 그는 최충현의 총애를 받아 이부낭중에 이르렀다. 또 D-3의 최충현의 사위 임효명은 登第 하자마자 내시에 소속되었고 합문지후에 보직되었다.

최씨가와 통혼을 이룬 인물 가운데 최충현의 집권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정숙침이 있다. 정숙침은 최충현의 아들인 최이의 장인이었다.<sup>16)</sup>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崔惟淸의 아들인 崔誥의 딸이 그의 처였다.<sup>17)</sup> 그는 이의민 집권 말기인 명종 24년(1194)에 불계를 피했다는 죄목으로 그의 부 정세유, 형 鄭允當과 함께 남쪽지방에 유배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숙침은 최충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보인다.<sup>18)</sup> 정숙침은 탄탄한 가문을 배경으로 최충현가와 혼인을 맺었던 관계로, 최충현의 집권에 적극 지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熙宗 7년(1211)에 왕준명이 회종과 최충현을 살해하려 했을 때에 최충현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19)</sup> 그가 최충현 정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을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최충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그룹의 하나는 경군이 있다. 경군은 국가의 중앙군인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병권을 쥐는 것은 국방 뿐 아니라 내치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민과 그 잔여세력을 제거하는데 경군의 동원은 필수적인 것이기도 했다. 최충현 세력에는 경군 가운데 반이의민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 아래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1 忠獻 忠粹馳馬露刃至十字街 見監行領將軍 白存儒告 以故存儒樂從之 召集將士(『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16) 정숙침의 父인 鄭世裕는 명종조에 형부상서에 이르렀다(『高麗史』 100 鄭世裕傳附 叔瞻傳).  
 17) 박용운, 「고려시대의 정안임씨·철원최씨·공암허씨 가문의 분석」, 『한국학논총』 3, 성신여대, 1978, 62쪽.  
 18) 김당택, 「최충현정권과 무인」, 『고려의 무인정권』, 국학자료원, 1999, 133쪽.  
 19) 『고려사절요』 14 회종 7년 12월.

-2 有人告云 平章事權節平·孫碩·上將軍 吉仁等 謀舉兵 又告景儒等有異 謀忠獻 卽召節平子將軍準·碩子將軍洪胤 與之飲 言笑自若 俄而目左右 皆拉殺之 又斬景儒於坐 以文淸老且直 釋不殺(『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사료 E-1에서 최충현이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監行領將軍 白存儒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최충현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그 추종세력을 제거하려 했을 때 前將士를 불러 모았다. 백존유는 최충현의 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감문위 장군 백존유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높은 상·대장군들이 정변에 가담하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변에서 공을 크게 세운 백존유는 최충현 집권 후 대장군에 올랐다.<sup>20)</sup> 그런 백존유는 사실 정변 전인 명종 25년(1195) 1월에 호부시랑으로서 금나라에 賀正旦使로 다녀오기도 했다. 이의민 집권기에 금나라에 다녀올 만큼 위치에 있던 백존유가 왜 최충현의 거사에 뛰어든지는 분명치는 않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금나라에 다녀 온 이후 최충현에게 포섭되어 정변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측이 틀리지 않다면, 백존유는 이의민 집권 말경 “최충현 주변에 모여들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는 E-2에서 보듯이, 吉仁의 난을 진압할 때도 선봉에 섰으며, 최충현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그런 까닭인지 신종5년(1202)에 백존유는 同知樞密院副使에 올랐다.<sup>21)</sup>

최충현의 거사에 군사동원에 협조한 경군에 속한 인물은 大將軍 李景儒와 崔文淸이 있다. 아래 기록이 그들이 최충현 집권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전해 준다.

F 仍請與大將軍李景儒·崔文淸等 討餘黨參與之 坐市街招募壯士 響應於是

20) 『高麗史』 권20 世家 明宗 26년 夏4월 己卯.  
 21)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諸衛將卒 亦皆畢集 膝行聽命 莫敢仰視 乃閉城門 分捕支黨 悉獲之(『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대장군 이경유와 최문청은 백존유와 마찬가지로 시가에서 장사들을 집합시켜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이경유와 최문청은 대장군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그만큼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은 정변 이후 최충헌에게 등을 돌렸으며, 나아가 최충헌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들의 역모는 최충헌에게 발각되어 결국 이경유는 살해되었으며, 최문청은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었다.

최충헌 집권에 기여한 인물에는 杜景升이 주목된다. 두경승은 전주 萬頃縣人이다. 그는 勇力이 있어 拱鶴禁軍에 임명되어 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후 그가 隊正이었을 때에 厚德殿 牽龍에 충용되기도 하였다. 그의 장인은 상장군 文儒寶였다.<sup>22)</sup> 무신란 이후 그는 이의방에 의해 내순검군 지위로 발탁되었다.<sup>23)</sup> 그가 최충헌과는 언제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먹의 힘이 강했던 것으로 보아 용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이의민 정권 아래에서 고위직에 올랐지만,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충헌을 따라 이의민 제거에 나섰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4)</sup> 최충헌 집권이 이루어진 명종 26년(1196)의 인사에서 두경승은 중서령에 임명되었다.

郎將 최윤광도 최충헌의 집권에 한 몫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 궁궐을 수색하여 이의민을 따랐던 세력들을 직접 제거하였다.<sup>25)</sup> 이렇듯 최충헌의 세력에는 경군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최충헌의 세력에 들어온 경군 지휘관들은 장군급뿐만 아니라 최고 지휘관인 상·대장군들이 포진해 있었다. 최충헌이 정변을 일으켜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

22) 『高麗史』 권100 杜景升傳.

23) 『高麗史』 권100 杜景升傳.

24) 김당택, 「최충헌과 무인」, 『고려의 무인정권』, 136쪽.

25) 『고려사』 권129 최충헌전.

리고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경군의 최고 지휘관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崔忠獻의 성문 봉쇄와 李義旼 兵力의 차단

최충헌은 이의민을 어떻게 제거하였을까. 이 점은 최충헌의 경군 동원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겠다. 최충헌이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사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듯하다. 첫째는 이의민이 경군의 병력 동원을 할 수 없는 장소와 시기를 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성문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성문을 열고 닫는 일은 병력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셋째는 경군 일부 지휘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포섭해서 자신의 쿠데타에 동원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부터 검토해 보자.

G (明宗 二十六年) 會王幸普濟寺 義旼稱疾不扈從 潛往彌陀山別墅 忠獻與忠粹及其甥隊正朴管材族人盧碩崇等 袖刃至別墅門外候之 義旼將還出門欲跨馬 忠粹突入擊之不中 忠獻直前斬之 從者數十人 股弁皆潰(『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사료 G는 최충헌이 어떻게 이의민의 병력동원을 차단시키고 제거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최충헌은 이의민이 명종을 호종하지 않고 일부 병력만을 이끌고 별장에 나갔을 때를 정변의 기회로 삼았다. 이의민이 국왕을扈從할 때라든가 성내에 있을 때는 병력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의민이 유사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한다면 정변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최충헌은 이의민이 개경의 성 밖으로 나갔을 때를 정변의 適期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충헌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는 20대에서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軍과 戰場에서 잔뼈가 굵어온 인물이라고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최충헌은 그의 나이 45세이던 명종 23년(1193)에 監門衛中郎將 借本衛將軍에 보직되었던 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sup>26)</sup> 감문위는 주지하다시피 궁성 내외의 여러 성문을 守衛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부대에 할당 배속된 병력은 1領, 즉 1,000명이었다.<sup>27)</sup> 『고려사』 권83 兵志 宿衛軍條에 의하면, 도성의 각 문에 배치되어야 할 감문위군의 숫자는 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28)</sup>

감문위에서 中郎將을 지낸 최충헌은 개경 성문의 위치라든가 병력 배치 현황, 그리고 궁성수비 병력의 동태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최충헌의 군사력이 이의민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음에도 정변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최충헌이 성문을 봉쇄하여 이의민 병력의 출동을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개경에는 후고구려의 궁에 때 왕건에 의해 발어참성이 축조되었다. 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宮城, 皇城, 羅城이 건설되었다. 나성은 외성으로서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都城·京城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성이 건설되면서 개경은 도성 안과 도성 밖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수도의 행정구역인 5部 坊·리가 적절히 재편되어 자리 잡게 되었다.<sup>29)</sup> 개경의 성문과 시설<sup>30)</sup>은 중요하다.

26) 癸丑冬改監門衛中郎將(『崔忠獻墓誌銘』 23행).

27) 李基白, 「高麗 京軍考」, 『李丙燾博士 華甲紀念論叢』, 1956 : 『高麗兵制史研究』, 1968, 70쪽, 「高麗軍人考」, 『震檀學報』 21, 1960 : 『高麗兵制史研究』, 89~90쪽.

28) 吳英善, 「高麗前期 軍人層의 二元的 構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22쪽.

29) 金昌賢, 「고려 개경의 羅城門과 皇城門」, 『歷史學報』 173, 2002, 3.

30)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연구』, 一志社, 1996. 25쪽 참조. 고려시대 개경의 나성과 황성을 비롯한 성문에 대한 연구는 문의 위치와 명칭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사 소개는 김창현의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특히 11~15쪽 참조.

최충헌은 정변 이전에 개경의 주요 성문 요소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핵심 장군들을 포섭하였던 것 같다. 또 그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경군과 개경의 성곽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곳을 통과하게 될 병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최충헌은 이의민 병력의 투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문을 폐쇄시켰던 것이다. 이의민의 병력동원을 원초적으로 봉쇄하였던 최충헌은 이의민 세력을 일거에 거세하였다.

이의민과 그의 추종세력 제거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개경의 성문구조와 병력 배치, 그리고 병력의 이동 시기 등을 훤히 꿰고 있던 최충헌이기에 가능했다. 최충헌은 이의민의 지휘 하에 있는 경군이 정변의 진압군으로 몰려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문을 폐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가 감문위 소속의 장수를 포섭하려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성문은 기본적으로 적의 궁성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반대로 유사시 병력을 어떤 지점에 집합시킬 때 여러 성문을 통하여 궁성병력이 이동하게 된다. 병력의 출입이 성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문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신란에서도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은 궁성 문의 차단을 위해 고심하였다. 성문은 병력이동의 주요한 루트였기 때문이다. 무신란에서 성문을 차단하는 것이 곧 정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 것이었다. 아래의 사료가 그것을 말해 준다.

H-1 至昏 駕近普賢院 高與義方先行 矯旨集巡檢軍 王纔入院門 群臣將退 高等手殺 宗植復基于門 左承宣金敦中 知亂作 在途佯醉 墮馬而逃(中略)或告鄭李曰金敦中先認而逃 鄭李驚曰 若敦中入城 奉太子令 閉城門固拒 奏捕亂首 則事甚危矣 如之何 義方曰 若爾我不南投江海 北投丹狄以避之 遂遣疾足者 抵京刺探其人 夜入城至敦中家候之 寂無人聲 門承宣所在 答以扈駕不還 其人回報 鄭李喜曰 事已濟矣(『高麗史節要』 권11 毅宗24년 8월 丁丑).

- 2 夜 宮闕災 諸寺僧徒 及府衛軍人 詣闕將救火 鄭仲夫李俊儀等 入直 義方兄弟 恐有變 走入于內 閉紫城門 不納諸救火者 故殿宇悉火 王出山呼亭痛哭(『高麗史』 권19 世家 明宗 元年 冬10월).
- 3 青郊驛吏三人 謀殺忠獻父子 詐爲公牒 召募諸寺僧徒 牒至歸法寺 寺僧執賚 牒者 以告忠獻忠獻 卽別立教定別監于迎恩館 閉城門 大索其黨(『高麗史節要』 권14 熙宗 5년 4월).
- 4 仁·光·公襲 馳入壽昌宮閉門拒守 忠獻等率衆圍之 存儒欲以火攻之 仁懼踰垣而遁(『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정중부·이의방·이고가 일으킨 무신란은 개경의 지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경에서 약 40리 떨어져 있는 普賢院에서 일어났다. 무신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바로 도망간 김돈중이 태자의 명을 받들어 성문을 폐쇄하는 일이었다(H-1). 성문 폐쇄는 쿠데타를 일으킨 병력이 우선 궁궐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일이기도 했다. 비상사태의 발생은 궁궐내의 6위의 장수들이 경군을 동원한다면 쿠데타 병력을 진압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무신란의 성사 여부는 바로 도성문의 폐쇄 여부와 직결되었던 것이다.<sup>31)</sup>

무신란을 일으킨 정중부·이의방·이고는 김돈중에 의해 성문이 폐쇄되고 진압군이 몰려들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변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남해로 피신하거나 거란으로 투항할 것

31) 鄭景鉉은 반란군이 도성에 들어서자마자 가구소를 제압한 뒤 곧바로 대궐로 침입해 들어갔는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절차로 미루어보아 도성 안팎 어디에도 상비군 병력이 집단적으로 주둔해 있지 않았음은 확실하다(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70쪽)고 하였다. 그러나 궁성주위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부대는 순검군이 있었으나 쿠데타군에게 역이용 당하고 있었다. 6위의 경군도 기본적으로는 常備軍으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충현이 이의민의 추종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정했던 정변의 실패 소지는 바로 성문의 폐쇄였다. 성문이 폐쇄되었다면, 궁성내의 진입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쿠데타 진압군의 출동으로 정변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정변주동자들이 김돈중을 추적하고 성문의 개폐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였던 것은 성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말해 준다. 성문이 개방된 것을 최종 확인한 정변주동자들이 '일이 성사되었다(事已濟矣)'고 외쳤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이 즉각 街衢所와 궁궐로 들어가서 그들이 제거하려 했던 인물들을 색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성문이 열려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성문의 중요성은 명종 원년(1171)궁궐에 화재가 났을 때도 무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H-2의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집권 무인인 정중부·이의방 등은 다른 변고가 일어날까 염려하여 궁궐의 문을 잠그고 진화하지 못하게 하여 궁궐 거의가 불탔던 것이다. 궁궐의 화재가 커졌던 원인은 바로 병력의 출입을 못하게 집권무인들이 성문을 폐쇄한데 있었다. 이렇듯 개경의 성문은 성내에 근무하는 병력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H-3의 기록은 최충현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무리들을 수색하는데 성문을 폐쇄하였음을 보여준다. 성문의 폐쇄를 지시하고 병력의 성문 안으로의 이동을 막은 것은 물론 역모자 수사에 이르기까지를 관장한 것은 최충현이 영은관에 설치했다고 하는 교정별감에 의해서였다고 보인다. 青郊驛吏들이 최충현 父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동원한 무리들이 성문을 통하여 밀어닥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폐쇄하는 일이 우선 조치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H-4의 기록은 최충현의 집권에 반기를 들었던 길인·유광·박공습 등이 최충현 세력의 선봉 결사대에 밀려 자신들의 본거지인 壽昌宮<sup>32)</sup>으로 도피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吉仁으로 대표되는 최충현

32) 壽昌宮은 明宗 元年 冬 10월 壬子의 화재로 癸丑에 옮긴 명종이 거처이다. 최충현의 집권 직전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의민 일파도 수창궁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충현의 집권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의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권에 반기를 든 세력이 도피 후 가장 먼저 한 조치는 바로 수창궁의 궁문을 닫고, 그 문을 막아 지키는 일이었다. 최충헌의 부대가 본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했던 것이다.

최충헌은 쿠데타에 있어서 성문을 장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의민 제거에 성문의 개·폐 여부를 신중히 하였던 까닭도 이 점에 있었다. 집권무인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크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충헌은 성문을 폐쇄하여 이의민의 병력 투입을 차단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성문을 폐쇄하여 이의민 병력을 차단한 최충헌은 이의민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다.

#### 4. 崔忠獻의 京軍 動員과 執權

최충헌이 경군을 동원하여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할 수 있었던 점을 검토해보자. 먼저 최충헌이 어떻게 경군을 동원하였을까 하는 점부터 살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시대의 兵權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I 臣等按 古者兵法之設 有發命·發兵·掌兵之差 發命者宰相也 發兵者居中 愾制也 掌兵者 受命以行者也 宰相非稟君上之命 不得發命 愾制非有宰相之命 不得發遣 掌兵者 非有愾制之命 不得以行 上下相維 體統不亂 雖欲爲變 莫能自動 此定法也 前朝舊制 取法唐宋 省宰掌邦治軍國之事 無所不統 卽發命者也 中樞掌軍機 卽愾制發兵者也 諸衛上·將軍已下 專掌府兵 以當宿衛 有變小則郎中 郎將 大則遣將軍已上 出以應敵 未嘗敗衄此則 掌兵者也(『定宗實錄』 권4 2년 4월 辛丑 條)

사료 I에 의하면, 전통적인 방법에 병권은 크게 發命과 發兵, 그리고 掌兵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發命權은 재상에게 있었으며, 發兵權은 조정하는(居中) 愾制에게 있었다. 掌兵權은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 즉 諸衛의 장수들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宰相은 君主의 명이 아니고는 군사를 발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총제도 재상의 명이 없으면 병력을 내 보낼 수 없었다. 掌兵者도 愾制의 명이 아니면 병력을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총제가 발병권을 발동하면, 2군 6위의 최고지휘관인 상·대장군은 掌兵權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위의 상·대장군 이하가 府兵을 장악하여 宿衛하다가 작은 변란이 일어나면 郎中과 郎將이, 큰 변란이 일어나면 將軍 이상이 발동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진다.

그러니까 발명권, 즉 발병권은 재상에게 있었지만, 그것은 국왕의 명에 따라 발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병권의 발동은 국왕 → 재상 → 총제 → 상·대장군 순으로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누층적인 계통에 따른 병권의 행사는 경군이 개경의 궁성·내성·나성 내에 주둔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무인집권 시기에는 병권을 발령하는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 국왕의 권력이 집권무인에 의해 행사되었다. 최충헌이 이의민 제거에 군사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같은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집권자 이의민은 경군 동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는데 공식적인 명령계통에 따라 경군을 동원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최충헌은 한 마디로 경군의 일부를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한 뒤 아우 최충수와 함께 곧바로 십자가로 이동하였다. 십자가는 남대문이 위치한 곳이다. 동서의 崇仁門과 宣義門, 그리고 남북의 會賓門과 北城門을 이었을 때 교차하여 十字를 이루는 거리를 말하는 듯하다.<sup>33)</sup> 이곳은 官廡가 즐비하고 坊市 등이 서서 市街의 중심을 이룬 지역이었다.<sup>34)</sup>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최충헌은 봉사 10조 가운데 1조에서 왕의 거처를 수창궁에서 燕慶宮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33) 박용운, 앞의 책, 36쪽. 앞의 '지도-2 開京의 시설' 참조.

34) 시가의 중심은 廣化門의 내외, 특히 밖의 長衢와 그곳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지역이

십자거리에는 유사시 병력의 동원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교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최충헌이 최충수와 함께 십자가로 갔던 것은 바로 이 점을 계산에 넣어둔 것이 아닌가 한다. 최충헌 형제는 그곳에서 監行領將軍 白存儒를 보고 이의민을 제거하게 된 연고를 알렸다. 백존유는 최충헌에게 적극 협조하여 즉시 壯士를 소집하였다. 최충헌은 경군의 일부병력을 장악하고 국왕에게 갔다. 최충헌이 경군을 돌려놓고 자신의 족당들만으로 국왕에게 가는 것은 명분과 대세를 확신시켜 주는데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의민 제거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이의민이 의종을 죽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의민이 백성을 暴虐하게 침해하였으며, 나아가 명종을 거세할 기회를 엿보았다고 하였다. 최충헌은 이의민에 의하여 저질러진 舊惡을 일거에 蕩滅하기 위하여 정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변이 이의민에 의한 舊弊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개혁을 ‘太祖의 正法’에 의거하여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고려왕실의 권위를 빌어서 시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sup>35)</sup> 이러한 내용은 최충헌이 이의민 제거 후 명종에게 올린 봉사10

었다. 희종 4년(1208) “秋 7月 丁未에 大市の 左右長廊을 改營하였는데 廣化門으로부터 十字街에 이르기까지 무릇 1,008楹이나 되었으며 (『高麗史』 권21 世家), 또 廣化門內에도 大倉의 南廊과 迎休門 등 73楹이나 되었다(『高麗史節要』 권14 熙宗 4년 秋7月), 위의 책, 38쪽. 십자가는 성종6년(987)에 更定되었다고 하는 5部 坊里 정비하였을 때에 중부에 속하였다. 5부는 대체적으로 羅城의 남북문인 會賓門과 北城門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東·西部로 나누고, 다시 동서의 崇仁門과 宣義門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南·北으로 나누는 형식이었다. 中部는 이들 구획선이 교차하는 십자가 주변 지역이었다(박용운, 위의 책, 171쪽).

35) 伏見賊臣(李)義旼 性鷲忍 震主陵臣 而搖神器 禍焰熾然 民不聊生 自國朝以來 未有義旼之惡 豈可一二哉 臣等 賴陛下威靈 一舉蕩滅 願革舊圖新 一遵太祖正法光 啓中興 所有封事十條 具列以奏(『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김당택은 최충헌의 봉사10조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실정을 열거함으로써 정변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崔忠獻의 政略의 일부”(金塘澤, 「李義旼政權의 性格」,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4, 56~57쪽). 봉사10조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논고는 崔軫煥, 「崔忠獻의 封事十條」,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54~78쪽 참조하라.

조의 첫 머리에 나오고 있다. 최충헌이 명종에게 이의민 제거의 명분과 타당성을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었다.<sup>36)</sup> 아울러 국왕의 발명권을 발동케 하려는 것이었다. 국왕의 발령을 통하여 최충헌은 공식적으로 이의민의 잔존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최충헌이 쿠데타에서 세 번째로 중요시 여겼던 것은 경군의 지휘관을 동원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한 후 감문위 소속 장군으로 보이는 백존유를 끌어들이어 군사를 소집하여 궁성에 들어가 명종에게 정변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大將軍 李景儒·崔文淸 등으로 이의민을 추종했던 잔여 세력을 제거하였다.<sup>37)</sup>

J 仍請與大將軍李景儒·崔文淸等 討餘黨遂與之 坐市街召募壯士 響應於是 諸衛 將卒 亦皆畢集 膝行聽命 莫敢仰視 乃閉城門 分捕支黨 悉獲之(『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최충헌이 정변에 끌어들이는 李景儒·崔文淸은 대장군이였다. 대장군은 알려져 있듯이 고려의 최고 지휘관이다. 2군 6위의 경군 총 4만 5,000명 가운데 대장군은 각 軍과 衛에 1명씩만 배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군과 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대장군인 것이다. 그러니까 경군 내에 대장군은 모두 8명이 있었다. 이들 대장군은 앞서 검토한 것처럼 상장군과 더불어 장병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사시 실질적인 병력은 장병권자가 운용하게 되어 있었다. 최충헌은 바로 군을 대표하면서, 장병권 발동의 주무자

36) 최충헌은 정치 개혁의 이상을 담아 명종에게 봉사10조를 올렸다. 그러나 집권 이후 최충헌이 시행한 정치의 실체는 봉사10조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大中, 「崔忠獻政權 研究」, 서강대학교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2, 58~66쪽 참조.

37) 최충헌이 쿠데타를 일으켜 경군 최고 지휘관인 상·대장군을 움직여 경군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은 아직 대다수의 경군의 지휘관들이 그 반대의 입장에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충헌 쿠데타를 일으킨 시기의 경군은 일시적으로 이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상·대장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의민을 추종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최충헌을 따르는 자도 있었다.

인 대장군과 더불어 명종에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발병권을 위임받은 최충헌은 대장군들을 통하여 장병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대장군들이 壯士를 불러 모았으며,<sup>38)</sup> 제위, 즉 6위의 장졸들까지 그의 휘하로 끌어 들였다.

이때 최충헌은 정변을 일으켰을 때처럼 성문의 개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궁성 내에서는 이의민을 추종했던 세력을 내치기 위해 성문을 폐쇄하였다. 궁성 밖에 있는 병력이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 궁성으로 들어올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충헌은 성문을 폐쇄하고 병력을 나누어 궁성 내에 있는 이의민의 당을 체포하였다. 최충헌이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을 거세하고 집권하였지만, 아직도 그의 집권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남아 있었다. 이들 세력의 존재는 최충헌 정권의 불안을 의미한다. 최충헌이 집권 후 도전세력을 제거하는 일에 철저했던 까닭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는데 그가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시기를 정변의 적기로 삼았다. 이의민의 제거에는 그의 동생 최충수와 생질인 대정 박진재와 족인인 노석승이 앞장섰지만, 그 추종세력을 제거하는 데에는 경군 가운데 반이의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동원하였다.

최충헌이 이의민세력을 거세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개경의 구조와

이의민의 병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성문을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21세에 도필리에서 홍위위 산원으로 改班하여 47세의 將軍으로 이의민을 제거하려 나설 때까지 줄곧 군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sup>39)</sup> 특히 그가 감문위에서 중랑장으로 근무한 경험은 성곽을 지키는 부대의 병력배치와 감문위의 운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의민을 제거한 후 그를 梟首하고 즉각 6위의 군사를 동원하여 국왕에게 정변의 정당성을 알렸다. 동시에 합법적인 형식을 거쳐 상·대장군을 동원하여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집권 후 최충헌은 경군 지휘관의 교체에 나섰다.

## 5. 崔忠獻 勢力 중심의 京軍 재편

최충헌이 집권 후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兵權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최충헌은 먼저 이의민 정권 아래에서 출세하였던 인물들을 제거해 나갔다. 이어서 경군의 최고 지휘관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나갔다고 여겨진다.<sup>40)</sup> 그의 집권에 반기를 드는 상·대장군은 물론 제거의 대상이었다. 최충헌은 경군 지휘관을 숙청하거나 귀향

38) 旗田巍는 최충헌은 시가에 앉아 사람을 불러 모았던 사실을 특이한 전술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반란의 규모는 확대되었고 승리도 결정적이었다고 하였다. 또 시가의 소모와 장사의 향응을 중요하게 보고 이것이 쿠데타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동시에 최씨의 사적 무력의 성립으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장사와 제위장수들이 순식간에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京軍으로 상비군이었다고 이해된다. 旗田巍 앞의 글 참조. 壯士에 대해 柳昌圭는 “장사들이 응함으로 인해 여러 위의 군사가 최충헌 등에게 가담했다는 것으로 보아 여러 衛와는 구별되는 군인이며, 그들의 향방에 따라 여러 위의 군사가 태도를 결정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그것은 바로 “2군의 군사가 아니었나 짐작된다”고 하였다.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 『東亞研究』 6, 1985;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113쪽).

39) 최충헌의 출세과정에 대해서는 金大中, 『崔忠獻 政權의 成立 背景 -崔忠獻과 李義旼의 관계변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93, 2002. 6. 참조.

40) 명종27년(1197) 최충헌이 동생 최충수세력을 제거한 뒤, 장군 및 상·대장군직에는 경군 가운데 최충헌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로 채워 나갔다. 일례로 신종2년 김준거 모반사건을 최충헌에게 고발한 金盾永은 낭장에서 장군으로 오른다(『고려사절요』 권14 신종2년 8월). 집권 후 최충헌의 경군의 상급 지휘관에 대한 인사는 이러한 양상으로 단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종3년 史臣이 評한 기록에 “최충헌이 제마음대로 임금을 폐하고 세워서 위복의 권세를 부려, 자기에 불췌는 자는 관등을 비약하여 승진시키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는 귀양보내며…(『고려사절요』 권14 신종3년 )”라는 대목은 최충헌의 인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을 보내서 정권의 불안요소를 제거해 나갔던 것이다. 최충헌이 어떻게 경군 지휘관들을 교체하여 갔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집권에 반기를 들었던 경군의 지휘관들의 존재와 그 동향을 살펴보자.

K-1 忠獻·忠粹 與文淸·景儒 會仁恩館議事 有人告云 平章事權節平·孫碩·上將軍 吉仁等 謀舉兵 又告景儒等有異謀 忠獻 卽召節平子將軍準·碩 子將軍洪胤 與之飲 言笑自若 俄而目左右 皆拉殺之 又斬景儒於坐 以文淸老且直 釋不殺(『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2 忠獻等 坐市幕 分捕節平碩及將軍權允·柳森栢·御史中丞崔赫尹等 殺之(『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3 時 吉仁 在壽昌宮 聞變 急卽與將軍俞光·朴公襲等 擅出武庫兵仗 以授禁軍及 宦官·奴隸 凡千餘人 諭曰 今忠獻作亂 多殺無辜 禍將及汝 宜各戮力 以立大功. 乃率衆 出宮門 踰沙嶺 向市街 忠獻等 勒兵迎戰 以敢死者十餘人爲先鋒 揮劍大呼 突陣而前 仁衆 望而四潰(『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4 仁·光·公襲 馳入壽昌宮閉門拒守 忠獻等率衆圍之 存儒欲以火攻之 仁懼踰垣而遁(『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5 王 使人開門 召忠獻·忠粹 忠獻等 疑仁在內 使郎將崔允匡入奏 賊臣義咬 跋扈 臣 舉兵誅之 其黨忌臣 反欲加害 然上天不助 兇徒自潰 尙有餘黨 潛側於內 請入宮搜捕 王許之 遂使允匡 縱兵闖入 隨遇輒殺 僵屍狼籍 光與公襲自刎 王左右 皆散走 唯小君及宮姬數人 侍側垂泣而已(『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L-1 忠獻等引兵 還仁恩館 捕叅知政事李仁成·上將軍康濟·文得呂·左承宣 文迪·右承宣崔光裕·大司成李純祐·大僕卿潘就正·起居郎崔衡·郎中文洪賁等三十六人 囚于館 仁至北山 剃髮被縋 墮巖下死 忠獻又殺上將軍 周光美·大將軍金愈信權衍等(『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2 忠獻 又流 判衛尉事 崔光遠 少卿 權信 將軍 權湜 杜應龍 郎將 崔斐 于南裔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傳).

K, L군의 사료들은 최충헌의 집권에 반기를 든 세력을 최충헌이 어떻게 거세시켰는가를 전해주고 있다. 최충헌 세력은 仁恩館이 본거지인(K-1, L-1) 반면에 그에 맞서는 吉仁으로 대표되는 그 반대세력의 근거지는 壽昌宮이었음을 알 수 있다(K-3·4).<sup>41)</sup> 최충헌은 평장사 권절평과 손석, 그리고 상장군 길인 등이 거병하려 한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제거할 때 앞장섰던 대장군 이경유·최문청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을 제보자를 통해 알고 있었다. 최충헌은 최문청을 제외하곤 모두 제거하였다.

K-3의 기록에 의하면, 수창궁에 있다가 사태가 급박해지자 상장군 길인은 장군 유광과 박공습 등으로 무기고를 열었다. 병기를 禁軍<sup>42)</sup> 및 환관·노예 등 천여 인에게 지급하였다. 길인의 난에는 상·대장군, 장군급의 지휘관이 대거 가담하고 있었다. 국왕을 시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군도 가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의민정권 아래에서 출세를 한 인물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적어도 길인의 난에 가담한 경군의 지휘관들은 이의민 정권에서 현실을 보장받았던 이들이라 생각해서 무리가 없을 줄 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충헌의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의 제거는 언젠가 자신들에게도 닥칠 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길인의 난에 가담한 세력은 궁문을 나가서 沙嶺을 넘어 시가로 나갔다. 이들은 수창궁에서 홍국사를 거쳐 광화문으로 연결된 축선에서 격돌한 것으로 짐작된다.<sup>43)</sup> 최충헌은 선봉 결사부대를 이용하여 길인의 전열을 무너

41) 최진환, 「崔忠獻의 封事十條」, 『高麗武人政權研究』(洪承基 編), 서강대출판부, 1995, 60~61.

42) 고려시대 禁軍에 대해서는 金洛珍, 『高麗 禁軍 研究』,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43)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25쪽 <개경의 시설> 참조.

뜨렸다. 그가 선봉부대를 운용했던 것은 전장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어진다. 명종 4년(1174)에 있었던 趙位寵의 난을 진압할 때, 그 역시 別抄都舍에 뽑혀서 전공을 세운 바 있었다. 그러니까 최충현은 자신의 전투 경험을 토대로 선봉 결사대를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열이 무너진 길인 세력은 일단 본거지인 수창궁으로 돌아가서 성문을 닫고 최충현 부대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백준유의 화공작전에 밀려 난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K-5는 최충현이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명종의 허락을 받았음을 전하고 있다. 낭장 최윤광을 시켜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모두 제거하였다. 최충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은관으로 돌아와 문무관 36명을 가두고, 상·대장군들을 살해하였다. L-1·2의 기록에서 그가 제거한 장군급 이상의 경군 지휘관만을 작성하면 <표 1>과 같다.<sup>44)</sup>

<표> 崔忠獻이 제거한 京軍의 지휘관

번호	계급	성명	제거 형태	비고
1	上將軍	吉仁	自殺	主動者
2		康濟	가둠	
3		文得呂	가둠	
4		周光美	殺害	
5	大將軍	李景儒	殺害	
6		崔文淸	不殺	年老·正直
7		金愈信	殺害	
8		權衍	殺害	
9	將軍	權準	殺害	權節平의子
10		孫洪胤	殺害	孫碩의子
11		權允	殺害	
12		柳森栢	殺害	
13		兪光	自殺	무기고 탈취
14		朴公襲	自殺	무기고 탈취
15		權湜	유배	
16		杜應龍	유배	

44) 金大中, 崔忠獻政權과 重房·都房·敎定都監, 『학예지』 13, 육군박물관, 2006, 28~32쪽.

최충현이 집권과 관련하여 제거한 장군급 이상의 지휘관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고려 최고의 지휘관인 상·대장군은 각각 4명이다. 경군에 그 인원이 각각 8명이었음을 떠올려보면 꼭 절반이 제거된 것이다. 이들 상·대장군은 중방의 구성원으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sup>45)</sup> 다음 해 명종 27년(1197)에는 상장군 高安祐, 대장군 白富公, 친종장군 周元迪을 영남으로 귀양보냈다.<sup>46)</sup>

중방의 영향력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초기 무인집권 시기인 명종대의 정치형태를 중방정치라고 부를 만큼 큰 것이었다. 집권무인의 정치가 한마디로 중방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7)</sup> 이러한 중방의 구성원이 되었던 상·대장군이 집권무인과 매우 밀착된 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장군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장군은 1領, 즉 1,000명을 거느리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경군에는 총 45명의 장군이 편성되어 있었다.<sup>48)</sup> 장군은 실제 제위의 병력 동원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집권무인은 장군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길인의 난에 장군들이 대거 개입되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표>에서 보듯이, 최충현에 의해 제거된 장군만도 8명이나 된다. 길인의 난에는 가담한 병력은 1,000여 명 정도인데 거세된 경군의 지휘관이 16명이나 된다. 이들 지휘관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생각하면 길인의 난은 보다 커질 수 있었을 것이다.<sup>49)</sup> 吉仁의 亂과 관련하여 최충현이 이의민정권 아래에서 상·대장군을 지낸 인물들을 과감하게 제거에 나서야 했던 이

45) 金大中, 『高麗前期의 重房體制의 成立』, 『國史館論叢』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참조.  
 46)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6년 4월.  
 47) 羅滿洙, 『高麗 明宗代 重房政治와 國王』, 『國史館論叢』 31, 국사편찬위원회, 1991; 閔丙河, 『중방과 교정도감』,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48) 李基白, 高麗京軍考,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71.  
 49) 1천여 명의 난에 가담한 지휘관의 수가 다수인 것은 지휘관 개개인이 길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 가담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군의 군역이 편제대로 4만 5,000명이 정상 운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高麗史』에 경군의 虛設化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이 무렵을 전후한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최충헌의 상·대장군을 비롯한 장군의 거세는 경군의 대폭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최충헌은 이후 熙宗 7년(1211) 12월에 상장군에 그의 측근인 金躍珍을,<sup>50)</sup> 고종6년 9월에 대장군에 崔俊文과 상장군에 池允深을 임명하였다.<sup>51)</sup>

이제 자신의 세력기반 구축을 위해 경군의 최고지휘관들을 교체해 나갔다. 장군을 포함하여 상·대장군들을 '최충헌 사람들'로 바꿔 나갔다. 특히 상·대장군의 교체는 곧 重房 구성원의 교체를 의미하였다. 이는 무인집권 기간에 그 역할이 중요하게 된 중방을 최충헌이 장악하려는 것이었다.<sup>52)</sup> 따라서 최충헌은 경군 지휘관 가운데 이의민의 측근은 우선 경질의 대상이었다. 또 자신과 거리가 있었던 인물들도 바꾸어 나갔다. 이의민의 아들인 대장군 지순이나 장군 지광 같은 이는 이미 이의민과 함께 제거되었다. 최고지휘관인 상·대장군 자리에는 최충헌의 측근 중에 측근인 金躍珍이나 崔俊文, 그리고 池允深과 같은 인물들이 포진하게 되었다. 최충헌의 경군 지휘관의 교체는 자연스레 중방의 장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자신의 통치기반을 다지는 일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 6. 맺 음 말

崔忠獻은 明宗 26년(1196) 4월 정변을 일으켜 李義旼을 제거하고 집권하

50) 『高麗史節要』 권14 熙宗 7년 12월.

51) 『高麗史節要』 권15 高宗 6년 9월.

52) 金塘澤은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敎定都監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金塘澤, 『崔忠獻政權과 武人』,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75~78쪽). Shultz도 신종 원년(1197)부터는 중방이 최소한의 의례적 기능만을 하였다고 보았다(*Generals and Scholars: Military Rule in Mediev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2000, 55~56쪽). 그러나 경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국왕이었다고 해서, 국왕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군 가운데서 힘 있는 자를 뽑아 사병으로 삼아 경군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기존 연구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였다. 그는 이의민 정권 시절인 명종17년(1187) 경상진주도 안찰사직 탄핵 사건을 계기로 이의민 정권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 이후 최충헌은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렸다. 어떻게 최충헌이 세력을 형성하여 이의민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하고 집권할 수 있었을까. 필자는 최충헌이 정변과정에서 동원한 京軍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충헌 세력의 형성과 경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충헌은 명종17년(1187) 억울하게 탄핵을 받은 이후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여 명종26년(1196)에 정변을 주도하여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렸다. 최충헌의 세력은 크게 族人和 黨與로 이루어진 族黨과 崔忠獻家와 通婚을 한 인물, 그리고 2군 6위의 京軍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反李義旼의 입장에 있었다. 최충헌은 이들을 규합하여 이의민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최충헌의 族黨은 그의 동생 최충수와 생질인 박진재, 그리고 노석송·김약진 등이었다. 그들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거사하여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최충헌의 측근인 이들 아래에는 경군 지휘관이 있었다. 최충헌의 생질인 박진재는 경군의 隊正으로 수백 명의 문객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 최충수 휘하에는 장군 오숙비·준존심·박정부 등이 있었다. 모두 최충헌 세력이었다.

경군 가운데 최충헌을 따랐던 상급지휘관들은 정변에서 이의민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監行領將軍, 즉 監門衛將軍 白存儒는 3중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開京의 성문을 봉쇄하여 이의민 병력의 출동을 차단시켰다. 정변이 성공을 거두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가 감문위에 소속된 장군이면서 정변에서 크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높은 대장군 이경유·최문청 등이 정변에 가담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특히 대장군 이경유·최문청의 정변가담으로 최충헌은 쉽게 6위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은 최충헌이 이의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였다. 최충헌은 군사력의 열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변을 이의민이 경군의 병력을 동원할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최충헌은 정변의 시기와 장소를 신중히 결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병력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문위를 정변에 끌어 들였다. 그리고 감문위 장군에게 성문을 봉쇄하도록 하였다. 정변을 이의민이 명종을 扈從하지 않고 일부 병력만을 이끌고 별장에 나갔을 때에 일으킨 것은 이 점을 고려한 것이였다. 이의민이 국왕을 호종할 때라든가 성내에 있을 때는 병력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였다. 또 이의민이 병력을 출동시켜 최충헌의 정변을 진압한다면 정변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이였다.

최충헌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경군과 개경의 성곽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곳을 통과하게 될 병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최충헌은 이의민의 병권 발동을 우려하였다. 이의민이 경군을 동원하여 최충헌을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따라서 최충헌은 정변을 일으키면서 성문을 폐쇄시켰다. 이의민의 병력동원을 원초적으로 봉쇄한 최충헌은 이의민 세력을 일거에 거세할 수 있었다. 이의민과 그의 추종세력 제거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개경의 성문구조와 병력 배치, 그리고 병력의 이동 시기 등을 훤히 꿰고 있던 최충헌이기에 가능했다. 최충헌이 장군을 비롯한 상·대장군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선택이였다.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최충헌의 경군 동원과 집권에 대한 것이였다. 고려 시대의 병권은 크게 發命과 發兵, 그리고 掌兵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發命權은 재상에게 있었으며, 發兵權은 조정하는(居中) 愍制에게 있었다. 掌兵權은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 즉 諸衛의 장수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宰相은 君主의 명이 아니고는 군사 발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병권의 발동은 국왕→재상→총재→상·대장군 순으로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인집권 시기에는 병권을 발령하는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 국왕의 권력이 집권무인에 의해 행사되었다. 따라서 최충헌이 이의민 제거에

군사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같은 구조에 기인한 것이였다. 집권자 이의민은 경군 동원이 가능하였지만 최충헌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의민을 제거하는데 공식적으로 병권을 발동할 수 없었던 최충헌은 자신의 세력이었던 상·대장군 및 장군들을 앞세워 일거에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을 거세하였다. 그리고 이의민 제거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것은 이의민이 의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暴虐하게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의민이 명종을 거세할 기회를 엿 보았다는 것이였다. 자신의 정변이 적신 이의민에 의하여 저질러진 舊惡을 일거에 蕩滅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아직 살아있는 이의민의 잔여세력을 제거하였다. 국왕의 허락을 받고 경군을 앞세워 이의민을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네 번째는 집권 후 최충헌이 장군을 비롯한 상·대장군의 경군을 교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최충헌이 집권 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마디로 兵權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충헌은 이의민 정권 아래에서 출세했던 인물부터 제거해 나갔다. 그의 집권에 반기를 드는 상·대장군은 물론 제거의 대상이였다. 최충헌은 경군 지휘관을 숙청하거나 귀향을 보냈다. 정권의 불안요소를 제거해 나갔던 것이다. 이어서 경군의 최고 지휘관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나갔다. 최충헌의 측근인 金躍珍이나 崔俊文, 그리고 池允深과 같은 인물들이 새롭게 상·대장군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최충헌 세력 중심의 경군 지휘관의 교체는 자연스레 중방의 장악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최충헌은 결국 병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통치기반도 다져 나갈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원고투고일 : 2007. 9. 11,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최충헌, 경군, 동원, 병권, 집권

<ABSTRACT>

Military Regime taken by General *Choi Chung-heon*  
it's *Gyeonggun* (the Central Armies)

Kim, Dae-jung

General *Choi Chung-heon* getting on for fifty was being rally by the followers, and finally eliminating Lee Eui-min and his followers. It was the year 1196 when the twelfth century was ending. Major groups of the revolt of the military led by *Choi Chung-heon* was *Jogdang* (the Relative Armies) and *Gyeonggun* (the Central Armies).

They are all anti-personnel of Lee Ui-min from *Gyeonggun* (the Central Armies).

The revolt of *Choi Chung-heon* could be success with mobilization of *Gyeonggun* in situation of enabling to mobilize the forces of Lee Ui-min. Wellknown about the employment of military forces who were guarding the fortresses, *Choi Chung-heon* closed the major gates of *Gaekyeong* prior to attack by the forces of *Lee Ui-min* in order not to commit his forces into the military revolt. After eliminating the remnants of *Lee Eui-min* through mobilization of supreme and grand generals, he recommended the Ten-service Articles to *Myeongjong* and announced the concept of reforming politics.

After seizing the power, he concentrated his efforts on the control of military power through the change of the half of supreme and grand generals, who were the highest commanding generals of *Gyeonggun*. Although the highest commanding generals of *Gyeonggun* are composed of

his faithful followers. *Choi Chung-heon* made firmly the foundation of military rule with the *Gyeonggun*. In an employment of *Gyeonggun*, he posted men who were able to classify as the his faithful followers to the key assignments.

Key Words : *Choi Chung-heon*, *Gyeonggun* (the Central Armies), Mobilization, Military Power, Military Regime